

담배가 인류의 공적?

이동식/KBS보도국 국제부장

미 국 인디언 아라비크족이 피우던 담배는 의 식용이었다. 손님이 오면 장죽에 담배를 넣고 불을 붙여 한 모금씩 나눠 마시니 이것이 '평화의 한 모금'이었다.

이렇듯 애당초 담배는 미국 인디언들이 일종의 공공목적의 약용으로 쓰던 것이었다.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도 약으로 쓰여서, 횃배를 고치는데 특효가 있다거나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춘향전 원본에도 나오듯이 조선시대 중말엽에는 나라의 상하 모두가 담배를 피웠다.

그 담배가 이제, 세계에 담배를 알린 유럽과 미국에 의해 가장 악독한 존재로 지탄을 받고 있다. 과거에 담배를 피우다가 60년대 담배갑에 경고문이 실린 후 담배를 끊었는데도 암에 걸려 죽어가게 된 한 미국여성과 남편이 담배회사로부터 2천만 달러, 우리 돈 24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게 되는 등 대규모의 배상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이른바 20세기 중엽 이후 세계적인 위세를 자랑하던 미국의 필립 모리스, 버트 레이놀즈 등의 담배회사들이 문을 닫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어찌면 미국의 경우 이제는 담배 보다는 마리화나나 코카인 등 마약이 담배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그러나 점점 개인주의로 변해 가는 미국사회에서 볼 때 마약은 자기 자신만의 문제이지만 담배는 그 연기로 인해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은 명백하다.

담배유해론자들은 담배를 마약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규제조치를 희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

구도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대법원은 담배를 중독성 마약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품이 담배판매를 규제하려는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과연 담배는 인류에게 공적(모두의 적)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사람에게 따라서 담배를 늘 물고 살아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배를 전혀 피지 않았는데도 폐암에 걸려 죽는 사람이 있으니 담배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물론 옆사람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담배를 피우던 미국 인디언들이 생각했듯이, 애당초 담배가 생겨난 곳인 옛날 미국대륙에서 인디언들은 들판에서 곡식을 구하고, 벌판을 달리며 사냥을 해서 식량을 구한 관계로, 그들의 체질에 담배는 문제가 없었을 터이고 그렇게 꼴초로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을 테인데, 유럽으로 건너가 고기만을 먹고 움직이지 않던 귀족들의 손에 들어가서는 중독자가 나오고 몸 안에 들어가서는 폐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까지 그렇게 담배를 열심히 피워도 폐암 때문이 아니라 위암 등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담배가 해롭고 해롭지 않고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전 세계가 서구적인 식생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동양인들까지도 담배가 해로워질 수 있겠는데, 그런 담배를 약으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보면 이제 모든 즐거운 것은 자기 속에서 즐겨야지, 남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안된다는 밀레니엄의 새로운 모랄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인식이 든다.

